

## 내러티브 비평으로 본 바로의

### 민족말살(genocide) 정책

-출 1:1-14을 중심으로-

장 석 정\*

#### 들어가는 말

출애굽기 전체와 혹은 일부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의 특징이 발견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성서본문이 어떤 자료에서 온 것임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본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출애굽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재의 형태가 갖춰진 신학적인 작품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sup>1)</sup> 차일즈(Childs)에 따르면,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현재 본문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해 받은 현재의 성서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출애굽기 서론인 1:1-14의 마소라(MT) 본문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성서기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바로가 취했던 세 가지의 조치들 중에서 첫째 조치에 대한 역사비평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John Durham,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xx.

2) Brevard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14.

(Historical Criticism)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 조치가 기록된 본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내러티브 비평(Narrative Criticism) 방법을 사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방법이 역사적인 배경을 증명하기 어려운 출애굽기 1장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주며, 전통적인 비평방법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강해진 현실에 대해서 바로가 취하고 있는 첫 번째 조치가 기록된 것이 1:1-14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바로가 파악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동시에 출애굽기 1장 전체를 2장부터 이어지는 모세<sup>5)</sup>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보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1-14은 모세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관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려는 것도 이 연구의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 1. 1:1-14에 관한 연구사

본 연구사에서는 자료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1-5절과 7절은 P자료에 속하고, 6절은 J자료에 속한다는 것이 문학비평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견해이다.

3) Mark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David Via, Jr.,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85.

4)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의 세 가지 조치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장석정, “바로의 인구 억제정책 再考,” 『구약논단』 10 (2001), 9-26.

5) 출애굽기 이외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래용,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모세와 다윗,” 『신학논단』 68 (2012), 37-61; 정석규, “민수기 20장 2-13절에 나타난 모세의 실패에 대한 공시적 연구,” 『구약논단』 45 (2012), 116-140.

그러나 차일즈에 따르면, 이렇게 자료들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들며, P 저자는 왜 그의 이전 자료들(창세기)을 다시 소개하고 있으며, 8절 이하의 본문에서 P보다 오래된 출애굽 전승의 J 자료에다가 그의 서론(1:1-5, 7)을 동반해서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sup>6)</sup>

차일즈는 출애굽기 1장 안에서 세 가지 전승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적적 인구증가(7, 12절)와 노예생활(11, 13-14절), 그리고 대량학살(genocide)(15-22절) 전승들이 그것들이라고 본다.<sup>7)</sup> 또한 대량학살 전승이 전체 1장의 구조를 제공해주었고 다른 두 개의 전승들은 이런 구조 속으로 합쳐지게 되었다고 본다.<sup>8)</sup> 그러나 차일즈에 따르면, 노동력의 증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었다는 점과 남자보다 여자를 죽이는 것이 인구 수를 줄이는 고대근동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전승과 대량학살 전승이 연합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sup>9)</sup>

도즈만(Dozeman)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기초를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의 노예 노동과 대량학살(genocide)을 통한 억압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이런 억압의 상황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사건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1:1-14에 있어서 P와 Non-P의 저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의 자료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5(P), 6(Non-P), 7(P+Non-P), 8-12(Non-P), 13-14(P).<sup>11)</sup> 프랍(Propp)은 P 자료를 문체적인 차이 때문에 P와 post-P

6) B. Childs, *The Book of Exodus*, 2.

7) 차일즈는 8-12절 안에서도 세 가지 전승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10절에서 ‘지혜롭게 하자’는 바로의 말에서 대량학살 전승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본다. 앞의 책, 10.

8) *Ibid.*, 11.

9) *Ibid.*

10) Thomas Dozeman, *Exodus* (Grand Rapids, Eerdmann, 2009), 55.

11) 도즈만이 소개하는 출애굽기 1:1-14에 대한 자료설과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Ibid.*, 57-61.

편집 자료로 나누는 의견을 지지하지만, 1-5a절은 P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b절(이집트에 있던 요셉)은 편집자의 기록이라고 본다. 또한 6절과 8-12절은 J자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7절은 P자료이거나 편집자의 기록으로 보며, 13-14절은 반복되는 문체로 보아서 분명하게 P자료라고 주장한다.<sup>12)</sup> 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에 관한 7절의 내용을 창세기의 P자료와 연관 짓고 있으며, 많은 후손을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J와 P자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sup>13)</sup> 밴 시터스(Van Seters)는 7절에 대해서 “브네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J자료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sup>14)</sup>

1-14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료 층들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은 각 구절들의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구절들 사이의 내용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내러티브 비평방법을 사용하여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바로의 첫째 조치의 목적을 유추하고자 한다.

## 2. 주제별 본문분석

### 2.1.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죽음

내러티브의 흐름에 따르면, 요셉은 출애굽기 1:1-14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절에는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12) Ibid., 125-126.

13) William Propp, *Exodus 1-18* (New York: Doubleday, 1999), 134.

14) John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4), 19-20. 구원자로서의 모세에 관한 모티브에 초점을 맞춰서 밴 시터스는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J자료와 P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Ibid., 1-12.

가족들이 70명이며,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5절에서 궁극적으로 성서기자가 기록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아들들의 이름<sup>15)</sup>이 아니라, 요셉이었다. 1-4절까지의 내용에다가 덧붙여서 5b절에 요셉을 언급하는 것은, 이어지는 6절의 내용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5b절의 요셉에 대한 언급은 6절(요셉의 죽음)과 8절(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연관성을 맺어주고, 5a절의 70명에 대한 언급은 7절(이스라엘의 번성함)과의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5절 전체의 내용으로 인해서 6-8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셈이 된다. 또한 8절은 8-14절로 묶여지는 단락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1-14절까지의 큰 단락은 5절에 나오는 요셉과 70명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6절은 갑작스럽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을 의미한다.<sup>16)</sup> 결국 6절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끝이며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들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집트 땅에서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성서기자에게는 이집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 있었을 때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 요셉을 포함한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통해서 요셉과 관련된 모든 세대는 종말을 고하고 요셉 이후의 세대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도즈만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6절의 기록은 창세기의 조상들 이야기와 이집트에서의 구원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이야기와 이집트에서의

15)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목록이 기록된 곳은 다음과 같다: 창 35:23-26; 46:8-27; 49:3-27.

16) Cornelis Houtman, *Exodus* vol.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229.

모세 이야기를 연관시켜준다.<sup>17)</sup> 창세기에도 이미 언급된 요셉의 죽음 (50:26)이 7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8절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사실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낡은 시대가 마감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sup>18)</sup> 새로운 시대의 기운은 7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증가와 강대함의 내용을 통해서 태동하게 되는 것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시대 사람들 모두 죽었다면, 본문의 흐름과 성서기자의 의도 면에서 볼 때,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요셉과 그를 이는 모든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다면, 요셉이 이집트에게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한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렸던 특별한 지위는 포기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 2.2. 이스라엘의 인구증가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수가 많아졌다. 둘째, 그들이 매우 강했다.<sup>19)</sup> 그 결과로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것보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본문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 아니라, 인구증가율이 높은 결과로 현재 인구가 많다는 현재 상황이다.

요셉의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17) J. Dozeman, *Exodus*, 65.

18) B. Childs, *The Book of Exodus*, 3.

19) 7절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הרבו), 무리를 이루며(וַיִּשְׁרָצוּ), 수가 많아지고(הרב) 매우 강하여(מצע) 온 땅에 가득하게(אלמו) 되었다.”



기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성을 가진 역사가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과거에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서 자손이 번성하였으며, 동시에 이렇게 많아지고 강해진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sup>25)</sup>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두 가지 약속들은 자손의 번성함과 약속의 땅을 주심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자손이 번성하고 강해져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해지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가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1:6),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수가 늘었다는 내용(1:7)은 창세기에는 없는 것들로서 출애굽기가 과거로는 족장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미래로는 출애굽 이야기를 지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1-5절의 내용(이집트로 이주)에서 6절(죽음)로 어색하게 넘어가는 것과 6절(죽음)에서 7절(번성함)로 부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없는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새롭게 소개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성서기자는 이런 내용을 6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7절에 기록하고 있다. 죽음과 인구증가라는 두 가지 내용은 1:1-7의 문맥 속에서 어색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창세기의 족장 전승과의 연관성과 단절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

더 상세하다.

25) B. Childs, *The Book of Exodus*, 3.

26) *Ibid.*, 2.

### 2.3.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등극과 그의 걱정들

내러티브는 이집트의 상황이 변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이 등극했기 때문이 아니다.<sup>27)</sup> 새로운 왕은 그 전의 왕이 죽거나 권좌에서 물러나면 언제나 등극하기 마련이다. 이 왕의 정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왔지만, 본 논문에서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된다.<sup>28)</sup> 8절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었나 하는 질문보다 우선되는 것은 왜 성서본문은 이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유일한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서는 종종 관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변화된 상황인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극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시이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야하는 결정

27) 이집트인들의 이해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5 (2012), 61-83.

28) 본 연구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출애굽기 연구서들과 연구들을 참고하라. 장석정, “세 가지 표징(출 4:1-9)에 대한 시정각적 연구,” 「신학논단」 71 (2013), 305-330. John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Michigan: Baker Books, 1997); G. W. Coats, *Exodus 1-18*, vol. IIA, FOTL (Grand Rapid: Eerdmans, 1999); W. A. Ford,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T.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G. Larsson,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Hendrickson, 1999); S. A. Loewenstamm,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Hebrew, orig, 1965 (Jerusalem: Magnes, 1992); M. Noth, *Exodus*, German orig. 1959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N. M. Sarna, *Exploring Exodu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1986); 이집트 본토인의 통치에서 벗어난 히소스족의 이집트 통치를 반영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W. Propp, *Exodus 1-18*, 130.

29) B. Childs, *The Book of Exodus*, 15.

적인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의 인구증가와 강해짐은 오랜 시간(400 여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왕도 역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등극한 것이다.<sup>30)</sup> 왕이 요셉을 모를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첫째는 요셉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이 왕이 요셉을 알고 있었더라면,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공헌한 일과 그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많아진 것과 강해진 것을 기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성서본문이 묘사하는 현시점에서 출애굽 사건이 성취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인구증가는 바로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려면 바로가 요셉을 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요소들은 필수적으로 연결 된다:

(인구증가) - (요셉을 모르는 왕) - (출애굽) - (땅의 약속의 성취)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는 것과 그들이 강하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다는 현재 상황을 인정한다(9절).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증가라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절에 이어지는 바로의 걱정들은 인구가 많고 강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연결되어야 마땅하다. 9-10절 본문은 다음과 같다:

30) C. Houtman, *Exodus*, 235.

그가 그의 백성<sup>31)</sup>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자.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 적군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1:9-10).

처음에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그 수가 아무리 크게 증가했다고 해도 이집트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보다 많게 되고 강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카수토(Cassuto)의 제안처럼 이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고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즉, 아직 이집트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많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sup>33)</sup> 성서기자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의 수적인 우위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런 바로의 상황파악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10a 절에서 바로는 그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자.” 하우트만은 히브리어 표현에 근거하여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이라는 번역 대신에 “그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지혜롭게 하자)라고 번역하여 10a 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킨다.<sup>35)</sup> 즉, 이스라엘의 수

31) 프람은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혼자만 이스라엘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연루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W. Propp, *Exodus 1-18*, 130.

32) U. Cassuto, *Exodus*, 10.

33) 프람에 따르면, 민중을 선동하는 지도자는 종종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며,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외국인 혐오증이 지나칠 정도임을 창세기 기록에서 볼 수 있다(42:9,12; 43:32; 46:34). W. Propp, *Exodus 1-18*, 131.

34) C. Houtman, *Exodus*, 236.

35) 히브리어 펜(pen)과 마케프(maqqep)가 같이 사용되어서 두려움이나 염려를 표현

가 많은 것이 현재 상황이므로,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sup>36)</sup>

따라서 10b절에 기록된 바로의 걱정거리들은 이런 현재 상황(이스라엘의 많음과 강해짐)의 파악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늘어난 시점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바로의 걱정은 일련의 가정적인 상황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면, 적군이 침략했을 때 적군 편에서 이집트와 싸우고 이집트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의 걱정거리들 중의 첫째는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의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은 바로가 파악한 현재 상황(인구의 많음과 강함)과 미래상황(인구가 더 늘어남)과 잘 연관되는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공로로 인해 다른 이방민족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그런 특별한 대우를 곧 철회했는지에 관해서 성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이방민족들처럼 대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한 나라에 지배를 받는 이방민족들은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지배민족에 반기를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집트 왕도 이런 일반적인 예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적군가담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걱정이다.

왜 왕은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진 이스라엘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이집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은 걱정하

---

하고 있다고 본다. *Ibid.*, 238.

36)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에 관해서 신약성서의 경우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박노훈, “성경번역의 난제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대학과선교』 23 (2012), 59-79.

37) B. Childs, *The Book of Exodus*, 15.

지 않는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로의 첫째 걱정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이 잘 대해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었다면, 그들의 수가 늘고 강해졌을 때, 당연히 이집트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반란을 도모할 것을 왕이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을 후대했었다면,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강해지는 것을 왕이 환영했을 것이다. 특히 고대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지배 국가는 피 지배 민족에 의한 국가의 노동력 공급을 없애버리려는 생각(15-22절에서의 바로의 조치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서 노동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sup>38)</sup> 따라서 10b절에서 바로가 걱정하는 내용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현 시점까지 어떻게 대해 왔는가라는 과거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바로의 첫째 걱정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많고 강하다는 현재상황과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미래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는 하지만, 적군의 침략이라는 특별한 가정(첫째 가정)과 이런 가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가정(둘째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군의 침략 상황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밀하마’(מִלְחָמָה)인데, ‘급습’ 혹은 ‘습격’ 등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습격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sup>39)</sup> 그렇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적군의 침입을 미리 예상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전쟁에 투입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가 두 번째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3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차일즈는 또한 인구수를 줄이려면 여자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과 나중에 15절에서 사나이를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Ibid., 11.

39) C. Houtman, *Exodus*, 239.

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서기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sup>40)</sup>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바로의 입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41)</sup> 그러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바로의 이런 걱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의 첫째 걱정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과 손을 잡고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가?<sup>42)</sup> 반대로 이집트가 승리하고 적군을 물리친 경우에는 더욱 더 이스라엘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베코르 쇼르(Bekhor Shor)<sup>43)</sup>에 따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적군을 도와서 이집트인들과 싸우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에 적군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떠남으로써, 많은 노동력을 잃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기자는 7절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준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될 결정적인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적군의 편에 서서 싸우고 이기는 경우에도, 이집트 땅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40)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장석정, “땅과 이스라엘,” 『대학과선교』 23 (2012), 9-36.

41) 프랍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가 걱정하는 이유를 합리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성서기자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는 것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W. Propp, *Exodus 1-18*, 132.

42) 프랍은 성서기자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통치자들로서 남아있기를 원할 지도 모른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보는데, 역사적 사실과 전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Ibid.*

43) Joseph ben Isaac Bekhor Shor는 프랑스인 유대 주석가로서 12세기의 학자이다. *Ibid.*, 132에서 재인용.

성취'라는 궁극적인 명제 앞에서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을 암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3. 바로의 첫째 조치

내러티브는 이제 바로가 내리는 첫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의 10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자는 것은 이 11절에 기록된 강제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로의 조치에 근거해서 볼 때, 증가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프랩은 주장한다.<sup>44)</sup> 자유민이었던 그들을 강제노역 조치를 통해서 노예로 만들면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 그들이 이집트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적군이 쳐들어 올 때 적군의 편에 서서 싸울 가능성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런 강제노역은 힘든 노동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도록 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반란을 도모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가능성도 없어지며 결과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서기자는 노예상황의 본질을 상세히 묘사하기 위해서 전승 속에 있는 옛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중노동,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 들에서 일하는 것(14절)-이런 다양한 노동들은 그 억압의 혹독함에 의해서 삶이 고달파지는 효과가 있다.<sup>45)</sup> 강제노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가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다고 이집트인들은 기대했는지 확실하지 않으

44) Ibid., 131.

45) B. Childs, *The Book of Exodus*, 15.

며, 심한 노동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력을 약하게 만들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될 수도 있다. 성서 본문의 이야기(narrative)는 엄격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sup>46)</sup>

이집트를 쳐들어올 적군을 가정(첫째 가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성서본문의 초점이 바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창 15:13)<sup>47)</sup>.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해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이집트 땅을 나가서(둘째 가정)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그들의 강한 것에 대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sup>48)</sup> 감독들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서 힘든 일을 시켜 학대하는 것이다. ‘마스’(מַסַּ)라는 히브리어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강제노역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바로가 기대하는 효과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고성이나 운하 등의 건설 사업을 통해서 장정들의 죽음을 유도한다. 이때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일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sup>50)</sup> 예상되는 결과는 남녀 성인

46) Ibid.

4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라는 내용이다.

48) 성서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바로의 조치가 왜 취해졌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요세 퍼스(Josephus)는 바로의 질투심이라고 본다(AJ, II, 201f).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런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파일로(Philo)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이집트 사람에게서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바로는 두려워했다고 기록한다(VM, I, 8).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1:10b절(이집트 땅에서 나감)의 내용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잃게 된다. C. Houtman, *Exodus*, 240에서 재인용.

49) ‘mas’에 동원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W. Propp, *Exodus 1-18*, 132.

50) C. Houtman, *Exodus*, 250.

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1)</sup> 과중한 노동이나 작업현장에서 의 사고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이것은 단기간에 이스라엘 성인 남녀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망자들의 발생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면에서는 이것이 우선적인 기대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 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는 예상되지만, 심각하게 많은 수를 줄이는 것은 노동력 확보라는 통치자들의 일반적인 정책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기대효과이다.

둘째, 몸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출산율이 낮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에 상관없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도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바로의 강제노역 조치가 모세의 탄생 전승과의 연관성이 없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계속되는 중노동은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적군이 침략했을 때 싸울 기력조차 없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며, 동시에 반란을 도모할 의욕을 줄일 수 있다.<sup>53)</sup> 이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적군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그들이 면제받았던 노역의 의무를 부과하면 엄청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규모 건설공사(비돔과 라암셋)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셋째와 넷째 효과는 10절에서 바로가 걱정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적군의 편에 설 수도 없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집트 땅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51) 이 당시에 여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바로가 의도한대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남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사 일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공사에 동원된 여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52) W. Propp, *Exodus 1-18*, 132.

53) C. Houtman, *Exodus*, 245.

노동력을 잃지도 않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여차 피 산아제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장정으로서 전쟁에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단기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기간에 장정들이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일즈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의 수를 줄이려는 이집트인들의 모티브는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래의 모티브는 약속된 영웅이 될 아기를 없애기 위한 왕의 시도와 관련되어 있어야만 했다고 본다.<sup>54)</sup> 결국 이런 주장은 바로의 강제노역 조치는 이스라엘 자손이 확대받게 되는 위기상황과 모세의 출생에 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차일즈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결국 2장의 모세의 탄생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서기자가 의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sup>55)</sup> 그렇지만 1장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증가와 강해짐에 대한 바로의 첫 번째 조치는 모세의 탄생이라는 모티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산파를 통한 남자 신생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둘째 조치는 모세의 탄생과 관련이 있지만, 그전에 취해졌던 강제노역 조치는 모세의 탄생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의 걱정은 이스라엘이 적군의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우게 되는 것과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걱정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현재 상황) 강해서 생긴 걱정거리다. 이 걱정에 대한

54) 특히 아카드의 사르곤에 대한 바벨론의 전설 등과 같은 병행구절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구조된 약속된 아기에 대한 공통의 *Märchenmotif* 가 모세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 Childs, *The Book of Exodus*, 8

55) *Ibid.*, 14.

조치는 강제노역이다. 남녀가 모두 노역에 동원되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죽을 수 있다. 출산율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노역은 남녀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아기로 태어날 모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출산율이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남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동시에 바로의 둘째(15-21절)와 셋째 조치(22절)는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걱정거리인 적군의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우고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신생아 남자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5-20년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의 걱정을 즉시 덜어줄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와 셋째 조치는 남자 아이로 태어날 모세의 탄생<sup>56)</sup>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첫째조치: 1) 남녀에 상관없이 피곤하게 만들어서 반란의 의욕과 출애굽 가능성을 없앴.  
 2) 바로의 두 가지 걱정(전쟁시 배반행위와 출애굽)을 막을 수 있음.  
 3) 출산율 낮아지나, 남녀 아기 모두 출생가능. (모세탄생과 직접적 연관 없음)
- 둘째조치: 1) 사내아이의 출산을 막고 여자아이들은 출산을 허용. (모세탄생과 연관됨)  
 2) 바로의 두 가지 걱정을 막는 것과는 연관 없음.
- 셋째조치: 1) 사내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을 살림. (모세탄생과 연관됨)  
 2) 바로의 두 가지 걱정을 막는 것과는 연관 없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역을 시키는 조치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현재의 숫자에서 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편입시켜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sup>57)</sup> 기력을 쇠하게 하여 반란을 도모하려는

56) 모세의 탄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의 탄생이라고 본다. 신명기역사가는 다윗의 언약과 메시아를 연관시키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남일, “신명기역사가의 관점에서 본 다윗언약과 메시아,” 『대학과선교』 18 (2010), 171-197.

57)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사상자는 예상할 수 있다.

의욕을 꺾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통한 노동력의 상실도 막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sup>58)</sup>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한 것이 두려웠다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적군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배신을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은 그의 선택사항 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내러티브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으며,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9절에 기록된 바로가 파악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이스라엘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후에 취해진 후속조치(13-14절)가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것에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힘든 일을 시켰던 첫째 조치가 비록 많은 인구를 줄이는 효과는 보이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들의 기력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에는 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역을 시키는 후속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의 첫째 조치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큰 효과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인구증가가 더 심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며,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이집트에서 운하공사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 가운데 120,000명이 죽었다는 것이다.<sup>59)</sup>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력을 쇠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58) 하우트만에 따르면, 성서기자는 바로의 강제노역 조치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C. Houtman, *Exodus*, 245.

59) Herodotus, *Hist.*, II, 158. *Ibid.*, 245에서 재인용.

데 바로의 인구증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더욱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읽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성서기자의 의도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즉 이성적인 사고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12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의 둘째 조치(1:15-21)와 셋째 조치(1:22)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아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강제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13-14절) 학대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학대에서 구원받게 될 출애굽 사건이 더욱 필요하게 되며, 이 출애굽을 인도할 인도자 모세의 탄생(2:1-10)은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둘째와 셋째 조치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학대 받을수록 더욱 인구가 늘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한 이집트 사람들이 취한 후속조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것인데, 특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 후속조치들이 거둔 효과에 대해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기력이 쇠하여 약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출산율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후속조치에 대한 효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15절 이하는 바로가 산파에게 사내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기록한다. 이것이 바로의 둘째 조치인데 첫째 조치의 기대 효과와는 다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이다. 신생아 중에서 남자아이를 죽인다고 해도, 10절에서 바로가 걱정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행위와 출애굽의 가능성을 당장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둘째 조치는 남자아이를 태어날 모세를 겨냥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고 11절에 기록된 바로의 첫째 조치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출애굽기 1장 1-1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내러티브 비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바로의 첫째 조치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다. 다음은 내러티브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분류해 본 것이다.

- (1-5절) 과거 상황 1: 야곱의 아들과 가족들의 이집트 이주와 이집트에 있는 요셉
- (6절) 과거 상황 2: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세대 사람들 모두 죽음
- (7절) 현재 상황: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인구와 강함
- (8절) 이집트 왕의 등극: 요셉을 모르는 왕
- (9절) 왕의 상황 파악: 이스라엘이 많고 강함
- (10절) 왕의 걱정들: 이스라엘의 배반과 출애굽 가능성
- (11절) 왕의 첫째 조치: 강제노역을 통한 학대
- (12절) 의외의 결과: 더욱 번성
- (13-14절) 후속조치: 다양한 강제노역을 시킴

5절에서 요셉을 언급함으로써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6절과 연결되며, 6절에서 다시 요셉이 언급됨으로써,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과 연결된다. 또한 왕이 첫째 조치로서 이스라엘을 강제노역으로 학대하는 것은 요셉을 모르기 때문이므로,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되는 상황 전체가 연결된다.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로가 가정적인 상황(전쟁 발발) 속에서 걱정하는 내용과 이런 걱정에 근거한 바로의 첫째 조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바로는 적군이 쳐들어올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서 배반하여 이집트에 대항해서 싸우고(첫째 걱정) 이집트 땅에서도 나가게 될 것(둘째 걱정)을 걱정한다. 성서기자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이 성취될 때가 임했다는 것을 바로의

걱정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발발에 대한 바로의 걱정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명제 앞에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가면 경제적인 면에서 바로는 엄청난 수의 노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걱정들에 대해서 바로가 취하는 조치는 강제노역을 시키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적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노동력을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강제노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배반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체력적으로도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하여 출애굽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노예전승이 2장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전승과 불가분 연관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러티브 비평방법에 따른 본 연구는 바로의 첫째 조치로 인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노예생활에 대한 전승은 이 첫째 조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혹은 남자아이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탄생에 관한 전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오히려 출애굽기 1장 15-22절에 기록된 바로의 둘째와 셋째 조치가 모세의 탄생 전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그 배경을 형성해 주고 있다. 출애굽기 1장 1-14절은 이스라엘의 인구증가와 강함에 대한 바로의 현실적인 조치에 관한 이야기이며, 성서기자는 바로의 걱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현실로 성취될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시행했던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제 3기에 해당하는 것이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일제강점기의 역사 속에서 자행된 민족말살정책과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은 역사적, 사회적 정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내용 자체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주요어>**

출애굽, 첫째 조치, 바로, 인구증가, 강제노역, 민족말살

**<Key Words>**

Exodus, First Measure, Pharaoh, Population Increase, Forced Labor, genocide

\* 원고접수일 2015년 2월 3일, 수정일 2015년 2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5년 2월 25일

## 참고문헌

- 김남일, “신명기역사가의 관점에서 본 다윗언약과 메시아,” 「대학과선교」 18 (2010), 171-197.
- 김래용,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모세와 다윗,” 「신학논단」 68 (2012), 37-61.
- 박노훈, “성경번역의 난제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대학과선교」 23 (2012), 59-79.
- 장석정, “바로의 인구 억제정책 再考,” 「구약논단」 10 (2001), 9-26.
- 장석정, “땅과 이스라엘,” 「대학과선교」 23 (2012), 9-36.
- 장석정, “세 가지 표징(출 4:1-9)에 대한 시칭각적 연구,” 「신학논단」 71 (2013) 305-330.
- 정석규, “민수기 20장 2-13절에 나타난 모세의 실패에 대한 공시적 연구,” 「구약논단」 45 (2012) 116-140.
-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5 (2012), 61-83.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I.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7.
- Childs, Brevard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ats, George. W., *Exodus 1-18*, vol. IIA, FOTL, Grand Rapid: Eerdmans, 1999.
- Currid, John 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Michigan: Baker Books, 1997.
- Dozeman, Thomas,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Durham, John,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 Ford, William A.,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 Fretheim, Terence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 Houtman, Cornelis, *Exodus*, vol.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Larsson, Göran,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Hendrickson, 1999.
- Propp, William H. C., *Exodus 19-40*, A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초록>

## 내러티브 비평으로 본 바로의 민족말살(genocide) 정책

-출 1:1-14을 중심으로-

장석정  
(가톨릭 관동대, 구약학)

이 연구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의 조치들 중에서 첫째 조치의 목적을 내러티브 비평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각 절의 상호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궁극적으로 이집트 왕에게 큰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서 고역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다. 그렇지만 이런 강제노역은 당장 생길 수도 있는 적군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의 분석결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바로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강제노역 조치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연구결과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바로의 강제노역 조치는 남자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으며, 이를 통해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성인남자들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조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1-14의 본문에 나타난 바로의 인구정책은 갑자기 늘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와 그들의 강함에 대한 대응조치였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의 탄생을 기록한 2장의 내용과의 연관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기록된 산파들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에서야 비로소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바로의 걱정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될 시간이 다가 왔다는 것을 성서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 Narrative Criticism on Pharaoh's Genocide

-Focusing on Exodus 1:1-14-

Prof.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lausible purpose of Pharaoh's first measure in Exodus 1:1-14 by using narrative criticism. The fact that each verse does not seem to match one another needs to be expla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low of the whole narrative. The logical explanation would be preferable because the biblical writer must have worked with such a coherent stream of mind.

The mention of Joseph in v. 5b is to relate the death of Joseph and all of his generation in v. 6. It also makes a reasonable connection with the rise of the new Egyptian king who does not Joseph in v. 8. Furthermore, the mention of the number 70 in v. 5a seems to contrast the population increase of the Israelites depicted in v. 7. The name Joseph makes the whole narrative of vv. 1-14 in one complete story in the first place.

The new situation develops in terms of Israel's tremendous increase of population and becoming strong. When the Pharaoh recognizes this situation he concerns with two things: the Israelites'

joining with enemy in the time of war and eventually going out of the land of Egypt. The hypothesized war in the mind of the king and possibility of Israel's going out of the land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However, going out of the land foreshadows the event of Exodus. The writer makes the king say this as the upcoming event of Exodus.

The king's measures of the forced labor could make the Israelites so tired that they could not fight against Egypt at the time of war. It could also prevent them from going out of the land because of lack of motivation. Then the king keeps those Israelites' labor force and utilizes them to construct the store cities and other buildings.

The birth of Moses is not connected with the kings' first measures because this measures is not to kill the infants but the grownups. Also the forced labor can kill both men and women at the work places. The tradition of the slavery with forced labor in 1:1-14 is not related to the tradition of Moses's birth. Only the second and third measures are definitely connected with Moses' birth.

